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 및 패션태도 요인분석

김정원¹⁾ · 척립²⁾

1) 경일대학교 뷰티패션학부

2) 중국 대련의과대학 뷰티코디네이션학과

A Factor Analysis of Lifestyle and Fashion Attitude of Chinese New generation

Jung-Won Kim¹⁾ and Quli²⁾

1) School of Beauty & Fashion, Kyungil University, Gyungsan, Korea

2) Dept. of Image Art Design Course, Dalian Medical University, Dalian, China

Abstract : The study of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management has special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young people's living, thought and attitudes. It was handed out 600 questionnaires in the three cities and look 573 questionnaires back, out of which 552 were used as the basic material for the analysis. These 522 questionnaires included 178 in Beijing, 200 in Shanghai, 175 in Dalian. 154 questions in four aspects were raised in the questionnai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Chinese generation' lifestyle and fashion attitudes. Questionnaires developed by researcher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from 552 chinese new generation of the three cities(178 in Beijing, 200 in Shanghai, 175 in Dalian). 1) Life attitudes of new generation men and women in China were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which were extravagant pleasure-seeking, sports-oriented, marriage-oriented, appearance-oriented and study-oriented attitudes. 2) Fashion attitudes of new generation men and women in China were classified into eight factors, which were fashion attitude of being conscious of others, others-dependent fashion attitude, rational fashion attitude, brand-pursuing fashion attitude, active appearance management fashion attitude, unique fashion attitude, fashion attitude of being conscious of sex role and individuality-oriented fashion attitude.

Key words : lifestyle, fashion attitude, Chinese new generation, appearance management

1. 서 론

아름다워지고 싶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오늘날 외모중시 풍조는 그 한도를 넘어 외모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등장하면서 '얼짱', '몸짱'과 같은 극적불명의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2004). 그러나 몸짱, 얼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로, 소위 몸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연예인들은 피트니스 개인 교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과처럼 이상적인 체형과 체력을 가꾸기 위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종류의 뷰티산업(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의복 등)이 가장 성장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성형외과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일보, 2004).

미에 대한 기존의 기준은 시대나, 장소, 개인에 따라 다르며, 주관적이라고 하여왔다. Kaiser(1990; 1994)는 이상적인 신체형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

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의복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된다고 하였다.

뉴스메이커(2003)는 미디어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전 세계 미의 기준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화 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에는 성형수술의 발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 스타나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성형수술이 기술의 발달과 비용의 저렴화로 이제 서울과 베이징, 도쿄 등의 여성에게 퍼지고 있다.

이렇듯 외모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 추세는 전통적인 동양문화의 대표적인 중국대륙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다는 관념 때문에 중국에선 여성의 외모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 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외모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시작하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외모를 중시하는

Corresponding author; Jung-Won Kim
Tel. +82-53-850-7513, Fax. +82-53-850-7620
E-mail: kjw508@empal.com

사회 분위기에 따라 중국 여대생이나 직장여성들이 성형외과 병원 문을 다투어 두드리고 있으나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중국 전통의 가치관 때문에 중국 여론의 대세는 성형수술에 대해 부정적이다. 따라서 성형수술을 한 여성들도 대체로 수술 사실을 숨기고 있으나 몰래 하는 성형수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외모가 인간가치 평가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만큼 외모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외모관련 연구는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다: 패션행동과 관련된 연구(고애란 외, 1987; 권순기, 1990; 김영인, 1990; 김현미, 1992; 김재희 · 정삼호, 1995; 이현정, 1995; 고애란 · 남미우, 1998; 김광경 · 이숙경, 1998; 김명숙, 1998; 윤명, 2000; 이은실, 2000; 전경숙, 2000; 류숙희 · 김보연, 2001),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연구(소지숙, 1992; 이경희, 1992; 신유정, 1994; 성영신, 1997; 심정은, 1997; 황진숙, 1998; 김정원 · 윤종희, 1999; 염경숙, 2000; 조선명, 2000), 신체조절과 관련된 연구(김연희, 1992; 변금순, 1997; 백숙희, 1998; 이미정, 1998; 이영주 · 임숙자, 2001; 최지성, 2002) 피부관리 및 화장행동관련 연구(한동여, 1987; 임혜원, 1999; 김숙례, 2000; 정미숙, 2000), 외모에 대한 인식(유창조 · 정혜은, 2002), 외모관리행동(김은주, 2001; 문지영, 2004) 등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변화하는 중국인의 미의식에 비추어볼 때 외모관련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로써 중국 신세대 남녀들은 어느 정도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외모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신세대들의 가치관을 포함한 생활태도, 패션관련 의식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중국 신세대 남녀의 외모관리와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 뷰티와 패션업계 종사자, 더 넓게는 이미지 연구하는 곳에도 도움을 주고자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문제

첫째,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태도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중국 신세대 인구통계적 변인 차이별 생활태도요인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중국 신세대 남녀의 패션태도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중국 신세대 인구통계적 변인 차이별 패션태도요인 차이를 검증한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 및 기간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1월 3일 상해 동화대학교 학생과 상해 교통대학교 대학원생 및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 하였다. 2004년 1월 3일부터 2004년 1월 9일 북경 청화대학교 미술대학 학생과 북경 향천대학 및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003년 12월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구분	변인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45	44.4	
	여자	307	55.6	
나이	18 - 20	155	28.1	
	21 - 22	187	33.9	
	23 - 25	167	30.3	
	26 - 30	43	7.8	
	결혼	기혼	33	6.0
학력	미혼	518	93.8	
	고등학교 졸업	20	3.6	
	대학교 재학 중	332	60.1	
	대학교 중퇴 및 졸업	89	16.1	
직업	대학원 이상	111	20.1	
	학생	444	80.4	
	사무직	63	11.4	
	전문직공무원	30	5.6	
수입 (위엔화)	기타	15	2.8	
	2000위엔 이하	165	29.9	
	2000-3000위엔	69	12.5	
	3000-4000위엔	136	24.6	
	4000-5000위엔	93	16.8	
	5000-10000위엔	68	12.3	
	10000위엔 이상	21	3.8	
	종교	불교	51	9.2
기독교	38	6.9		
키	무교	398	72.1	
	기타	65	11.7	
	전체	160Cm 이하	105	19.0
	161 - 165Cm	99	17.9	
	166 - 170Cm	136	24.6	
	171 - 175Cm	94	17.0	
	176 - 180Cm	88	15.9	
	181Cm 이상	30	5.4	
	남자	165Cm 이하	14	5.7
	166 - 170Cm	58	23.7	
171 - 175Cm	77	31.4		
176 - 180Cm	67	27.3		
181Cm 이상	29	11.8		
몸무게	여자	150Cm 이하	2	0.7
	151 - 155Cm	20	6.5	
	156 - 160Cm	77	25.2	
	161 - 165Cm	94	30.7	
	166 - 170Cm	75	24.5	
	171Cm 이상	39	12.7	
	전체	50Kg 이하	136	24.6
	51 - 55 Kg	119	21.6	
	56 - 60Kg	113	20.5	
	61 - 65Kg	76	13.8	
	66 - 70Kg	60	10.9	
	71Kg 이상	48	8.7	
	남자	55 Kg 이하	20	8.1
56 - 60Kg	51	20.8		
61 - 65Kg	68	27.8		
66 - 70Kg	58	23.7		
71Kg 이상	48	19.6		
거주지	여자	40Kg 이하	7	2.3
	41 - 45Kg	24	7.6	
	46 - 50Kg	100	32.7	
	51 - 55Kg	101	33.0	
	56Kg 이상	75	24.5	
	북경	177	32.1	
	상하이	200	36.2	
대련	175	31.7		

22일부터 2004년 1월 10일 대련 대련경공업대학교 학생과 대련 민족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 및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경, 상해, 대련 지역의 20대 전후의 신세대 남녀를 600여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73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21부를 제외한 55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중 북경에 배부한 총수는 178부, 상해 200부, 대련에 배부한 총수는 157부였다. 연구에 사용된 대상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3. 설문지 제작 및 구성내용

본 논문은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I에서는 생활태도에 관한 문항, II에서는 폐선택도에 관한 문항, III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구통계적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 형태는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s: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와 다지선다형(Multiple Choice Question)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하여 분석 방법으로는 각 점수분포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술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실시하고, t(t-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분산분석(ANOVA),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s Test

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태도요인 분석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태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5개의 특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요인별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요인1은 자신의 경제능력을 초월한 소비로서 쾌락을 위하여 나이트클럽, 미장원, 사우나탕에 자주 찾아가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사용율이 현금 사용율보다 높은 과소비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를 “과소비향락형의 생활태도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3.029, 평균변량은 4.454%이다.

이러한 요인이 중국 신세대 남녀의 가장 중요한 생활태도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세대의 성장과정은 바로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소비주의 대폭발의 현상의 산물이며, 또 그들은 중국사회의 첫 번째 “외동자녀”들이어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를 형제자매와 나누어가지질 우려가 없으므로 과소비는 마치 이 세대들의 전유물로서 누리고 있는 듯하다. “중국청년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92.7%의 대학생들은 가정공급을 가장 중요한 경제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총 소비의 70%이상 차지한다. 가정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져 대학생 소비의 특수한 사치구조를 이루게 한다. 젊은 남성

Table 2.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태도 요인분석표

요인명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값(Eigen Value)	전체변량(%)
요인1: 과소비향락적 생활태도	용돈이 부족할 때 현금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	.685	3.029	4.454
	한달에 한두번 나이트클럽에 가는 편이다.	.657		
	여성(남성) 흡연에 관해 긍정적이다.	.580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	.536		
	내 머리 염색을 자주한다.	.463		
요인2: 스포츠 지향적 생활태도	목욕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	.412	2.818	4.145
	한달에 몇 번 정도는 스포츠나 취미에 관한 활동을 한다.	.816		
	스포츠나 레저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797		
요인3: 결혼지향적인 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760	2.644	3.888
	사랑하는 사람과 혼전관계도 무방하다.	.811		
요인4: 이성에 대한 태도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765	2.468	3.630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외모를 고려한다.	.683		
	내 여자친구가 낯선 했으면 좋겠다.	.484		
	결혼 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다.	.466		
	평범한 여자(남자)친구보다는 튀는 여자(남자)친구가 좋다.	.443		
요인5: 학업에 대한 태도	부모의 과잉보호, 잔소리, 간섭으로 갈등이 있다.	.430	2.430	3.574
	학교성적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676		
	이성교제가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566		
	용돈은 계획을 세워 쓰는 편이다.	.471		
	어학연수 또는 유학에 관한 경험이 있다.	.452		
	대학은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409		

대학생은 레저와 오락에 대부분 비용을 써버리고 여대생들은 소비는 의류제품과 일용품에 집중되어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신용카드 한 장 소유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카드 소비를 유행으로 여긴다. 젊은이들은 실지경제능력을 초월한 향락을 너무 일찍 누리고 있다. 따라서 허다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들의 부모세대와 비교해볼 때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의 물질조건은 훨씬 낮다. 최근 중국대학생들의 4대 소비는 “관광소비, 컴퓨터소비, 핸드폰의 소비, 연애소비”라고 사실과 본 연구의 결과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2는 배달 자기가 선호하는 운동에 참가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스포츠지향적인 생활태도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818, 평균변량은 4.145%이다.

중국의 신세대는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성들은 건강한 신체를 위해, 여성들은 날씬하고 균형잡힌 신체를 위해 운동을 한다.

요인3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인정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결혼지향적인 생활태도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644, 평균변량은 3.888%이다.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부모세대와 비교해 많이 개방되었고 일부 새로운 관념, “혼인” 등 문제를 이해하고 접수하나 가장 기본적인 혼인태도는 큰 변화가 없는바 “일부 일치”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백년해로할 것을 바라면서 혼인에 문제가 생기지말 것을 바라고 장래의 혼인에 희망을 품고 있다.

요인4는 배우자 선택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중시하고 자기의 이성친구가 날씬한 몸매를 소유할 것을 바라는 등 이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문항으로 묶여있어 이성 외모 중시적 생활태도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468, 평균변량은 3.630%이다.

물질의 풍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매체, 네트워크에 대한 지나친 접촉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이미지, 함께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쉽게 접수하고 경험해보려 한다.

요인5는 재학 중의 학습 성적이 장래의 사회진출에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이성교제하면 학습에 영향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학업지향적인 생활태도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430, 평균변량은 3.574%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현재 젊은 세대는 직업 선택 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각종 학교에서 졸업하는데 그들의 소망은 자기에게 적합하고 수입이 높은 직업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학과 졸업증이 필요하므로 재학기간의 학습 성적, 학습 경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사에 의하면 최근 2, 3년간 중국에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국외에서 졸업하고 귀국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하

는 사실과 본 연구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3.2. 인구통계적 변인별 생활태도요인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태도 요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과소비향락적인 생활태도요인은 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 연령, 학력, 종교, 수입, 직업, 거주지)중 학력, 종교, 거주지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해, 스포츠지향적 생활태도요인과는 성별, 거주지, 반면 결혼지향적인 생활태도요인은 연령, 학력, 거주지와 이성 외모지향적 생활태도요

Table 3. 인구통계적 변인별 생활태도 요인 차이

요인	인구통계적 변인	평균	F-Value
요인2: 스포츠 생활태도	성별 남		50.353***
	여		
요인4: 이성에 대한 태도	남		28.766***
	여		
요인 3: 결혼에 대한 태도	나이 18-20	-0.0330(C)	12.709***
	21-22	-0.047(B)	
	23-25	0.328(A)	
	26-30	0.117(AB)	
요인5: 학업에 대한 태도	18-20	0.0915(B)	3.559*
	21-22	-0.121(B)	
	23-25	-0.047(B)	
	26-30	0.378(A)	
요인1: 과소비 향락적 생활태도	학력 고졸	0.447(A)	7.822***
	대제	-0.129(B)	
	대학원제학	0.365(A)	
	대학원이상	-0.017(B)	
요인3: 결혼에 대한 태도	고졸	0.026(AB)	8.546***
	대제	-0.166(B)	
	대학원제학	0.205(AB)	
	대학원이상	0.326(A)	
요인5: 학업에 대한 태도	직업 학생	0.052AB	2.896**
	사무직	0.1765270AB	
	판매서비직	0.2607391AB	
	전문경영직	0.8902955A	
	공무원	-0.4376098B	
요인1: 과소비 향락적 생활태도	종교 불교	0.0765B	2.550**
	기독교	-0.041B	
	천주교	1.738255A	
	무교	-0.03	
요인1: 과소비 향락적 생활태도	기타	-0.1027435B	7.645***
	거주 북경	0.0414A	
	상하이	0.1642948B	
요인2: 스포츠 생활태도	대련	-0.2296302B	10.250***
	북경	-0.013B	
	상하이	0.2208380A	
요인3: 결혼에 대한 태도	대련	-0.2396789C	5.220**
	북경	0.1798656A	
	상하이	-0.019AB	
	대련	-0.1600363B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A>B>C>: Duncan Test

인은 성별과 학업지향적 생활태도요인은 연령,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성별에 의하여 나타난 생활태도요인 차이를 분석해보면 스포츠지향적 생활태도요인, 이성외모지향적 생활태도요인에서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는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평소 스포츠생활을 더욱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신체의 균형과 몸매의 날씬함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성외모지향적인 생활태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성친구의 외모를 중요시하며 이성친구의 내면세계보다는 외모를 더욱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현대 중국사회는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여성의 힘이 남성보다 약하므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남성의 능력을 통한 신분 상승을 실현해보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지향적인 생활태도요인에서는 $P<.001$ 수준에서, 학업지향적 생활태도요인에서는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줬는데, 23~25세의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보다 결혼지향적인 생활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 연령 집단의 결혼이 가장 많고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26~30세, 21~22세, 마지막으로 18~20세가 결혼지향적 생활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 단계에서는 모두 학업에 정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학업지향적 생활태도에서는 26~30세 집단이 25세 이하의 집단보다 어느 정도 높은 편인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이며 학업을 중시하면서 이성과의 교제가 학업에 지장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학업연수, 국외유학 등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하면서 현실적인 생활태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학력에 의한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집단과 대학원 재학 중의 집단이 대학재학 집단과 대학원이상학력집단보다 과소비 향락적 생활태도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청년들은 가정의 경제조건이 좋은 편이므로 돈에 대해 걱정이 없다. 그러나 대학재학중의 집단과 대학원 졸업한 집단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결혼지향적인 생활태도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집단이 가장 높는데 그들은 학업을 완성했으므로 더욱 많은 정력으로 결혼문제를 고려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학원재학 집단, 그 다음은 대학재학 집단,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졸업집단이 결혼지향적 생활태도가 가장 낮았다.

직업적 차이에 근거하여 분석해보면 전문직 경영관리직을 가진 집단이 가장 학업지향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그들에 대한 전문지식요구가 높으므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판매원, 서비스업 종업원, 사무직과 학생이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학업지향적 생활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에서 공무원만 되면 직업에서의 경쟁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에 의한 차이를 분석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이 불교, 기독교에 비해 보다 과소비 향락적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종교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어느 정도 자기를 단속하면서 절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면 북경거주 집단이 상해, 대련 거주 집단보다 과소비향락지향적 생활태도를 더 나타냈는데, 이는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므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문화오락 활동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스포츠지향적 생활태도에서는 상해거주 집단이 북경과 대련거주 지역 집단보다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해사람들은 몸집이 북방사람보다 작으므로 보다 스포츠에 전념하므로써 외모가꾸기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3. 중국 신세대 남녀의 패션태도요인분석

중국 신세대 남녀의 패션태도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8개의 특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요인별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먼저 요인1은 자신의 개성표현보다는 타인을 인식하는 패션행동을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타인의식적 패션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3.962, 평균변량은 8.430%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발전의 한 단계에 처해있고 물질이 아주 풍부해졌으므로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패션선택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생활이나 사업을 막론하고 청년들의 복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시간, 지점, 날씨, 환경과 목적에 따라 옷을 입지 맹목적으로 아무 요구가 없이 입지는 않는다.

요인2는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타인의존적 패션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3.180, 평균변량은 6.766%이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대의 청년들은 사업과 학습에 바빠 많은 시간을 들여 쇼핑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늘 친구나 판매원의 의견에 따라 옷을 구매한다. 또 일부 사람들은 옷차림의 조화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하므로 늘 광고를 보고 의복을 구매하거나 유행을 잘 따르고 패션감이 뛰어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고 모방하는 패션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인 3은 패션태도가 비교적 과학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 패션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869, 평균변량은 6.105%이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 옷을 구매하고 늘 맞춰 입는 옷을 고려하고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옷을 구매한다. 이는 사람들의 옷 구매심리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점 성숙됨을 말해준다. 합리적 옷 구매심리는 사회경제신장과 정비례를 이루므로 패션태도는 더욱더 합리화되고 있다.

요인4은 고가의 상품 구매 시 만족감을 느끼며 이름 없는

Table 4. 중국 신세대 남녀의 패션태도 요인분석

요인명	문항내용	요인부하량	고유값 (Eigen Value)	전체변량 (%)
요인1: 타인의식적 패션태도	어른을 만날 때 의복에 신경을 쓴다.	.686	3.962	8.430
	대체로 나의 외모에 만족을 한다.	.662		
	나는 항상 나의 외모를 잘 가꾸고 다닌다.	.658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는 패션감각을 표현할 줄 안다.	.562		
	깔끔하고 단정한 패션스타일을 좋아하며 상황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안다.	.483		
	거울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몸 전체의 표정을 꼭 f어본다.	.472		
요인2: 타인의존적 패션태도	나보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외적 이미지를 유심히 관찰한다.	.464	3.180	6.766
	TV나 광고를 보고 의복을 구입한다.	.755		
	내가 맘에 들지 않아도 점원이나 동행한 친구가 잘 어울린다고 하면 의복을 구입한다.	.728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구입한다.	.667		
	여자(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구입한다.	.656		
	패션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부럽다.	.478		
요인3: 합리적 패션태도	가지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를 위해 구입한다.	.731	2.869	6.105
	옷을 구매할 때 항상 맞춰 입을 옷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680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옷을 구입한다.	.668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따라 의복을 구입한다.	.642		
요인4: 고가제품추구 패션태도	고가의 상품을 샀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674	2.298	4.889
	한달에 세 번 정도 의복을 구입한다.	.652		
	비싼 제품이 품질도 좋다고 느낀다.	.631		
	옷을 구입하는 것이 나의 취미중 하나이다.	.563		
요인5: 적극적 이미지 관리 패션태도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는다.	.614	2.184	4.646
	이미지전문가에게 조언을 꼭 받아보고 싶다.	.504		
	체중이 늘어나면 식사량 조절에 들어간다.	.446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패션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	.436		
요인6: 독특성 추구 패션태도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784	2.034	4.327
	'멋지다, 잘 생겼다'는 말보다 '감각있다'라는 말이 더 좋다.	.696		
	나는 내가 생각해도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한다.	.477		
요인7: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	쇼핑하다가 여성복(남성복)에서 맘에 드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691	1.779	3.785
	여성복(남성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665		
	쇼핑하다 마음에 들었지만 혹시 여자(남자)옷이 아닐까 싶어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	.471		
요인8: 개성지향적 패션태도	나에겐 나만의 이미지 모델(뺏고 싶은 인물)이 있다.	.684	1.675	3.563
	튀는 패션 컬러와 스타일을 좋아한다.	.454		
	나만의 이미지를 찾고 싶다.	.429		

옷 몇벌 사기보다 유명브랜드 옷 한 벌 사는 것이 낫고 비싼 상품일수록 질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고가 유명브랜드 추구 패션태도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298, 평균변량은 4.889%이다.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면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회지위, 재부 등을 과시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 향상과 유명브랜드 상품 종류의 풍부함은 많은 사람들의 구매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요인5는 즉 적극적인 외모관리 패션태도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184, 평균변량은 4.646%이다.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에 아주 신경을 쓰는데, 이미지의 좋고 나쁨은 자기의 생활과 사업에 좋거나 나쁜 영향을 끼친다. 청년들은 사업, 학습 및 친구 사귀는 면에서 발전 단계에 처해 있으므로 외모의 생활에서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생활 중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면을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요인6은 독특한 패션태도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034, 평균변량은 4.327%이다.

독특한 사물을 선호하고 남들이 자기를 잘 생겼다고 칭찬하기보다 기질(氣質)이 좋다고 칭찬하는 것을 더 좋아하므로 이렇게 명명했다. 새 세대의 청년들이 받은 교육의 수준은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쉽사리 신기하고 독특한 사물을 접수하기 좋아한다.

요인7은 옷을 구매할 때 비교적 좋은 이성복장을 발견했거나 구매한 적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799, 평균변량은 3.785%이다.

청년들은 이성의 복장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상의 관계로 그들은 복장의 성구별 요구가 그리 높지 않다. 많은 청년들은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이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유행으로 여긴다. 때문에 그들은 이성복장에 가장 흥미를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요인8 즉 개성지향적인 패션태도이다. 고유치는 1.675, 평균 변량은 3.563%이다.

생활수준의 제고에 의해 청년들은 자신의 패션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그들은 타인과 꼭 같은 패션풍격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원화의 패션효과를 선호한다. 그들은 이로써 남다르게 뛰어난 품위를 뽐내시켜 남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아주 뚜렷한 유행색상이나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자기만의 특색을 찾으려고 한다.

3.4 인구통계적 변인별 패션태도요인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패션태도요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타인의식적 패션태도요인은 인구통계학 변인 중에서 종교, 몸무게, 키 외에 기타 요

Table 5. 인구통계적 변인별 패션태도요인 차이 검증

요인별	변인	구분	평균	F-Value
요인3: 합리적 패션태도	연령	18-20	0.1173156B	3.251*
		21-22	0.0326B	
		23-25	0.041B	
		26-30	-0.439369A	
요인4: 고가제품 추구패션태도	18-20	18-20	-0.2257899C	5.657**
		21-22	-0.026BC	
		23-25	0.1560534AB	
		26-30	0.3218360A	
요인7: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	18-20	18-20	0.2068674A	3.412*
		21-22	-0.067AB	
		23-25	-0.1247660B	
		26-30	0.0291AB	
요인8: 개성지향적 패션태도	18-20	18-20	0.1735131A	5.309**
		21-22	0.0853AB	
		23-25	-0.1729841BC	
		26-30	-0.3247866C	
요인1: 타인의식적 패션태도	18-20	18-20	-0.1216322B	3.947**
		21-22	-0.1062318B	
		23-25	0.1726023A	
		26-30	0.2300874A	
요인3: 합리적 패션태도	학력	고졸	-0.3661152B	6.095***
		대제	0.0768A	
		대학원재학	-0.3620211B	
		대학원이상	0.1152587A	
요인4: 고가제품추구 패션태도	고졸	고졸	0.3176993A	3.823*
		대제	-0.1142470B	
		대학원재학	0.1841116AB	
		대학원이상	0.1328651AB	
요인5: 적극적 이미지관리 패션태도	고졸	고졸	0.3013954A	3.517*
		대제	-0.012AB	
		대학원재학	0.2185196A	
		대학원이상	-0.198063B	
요인8: 개성지향적 패션태도	고졸	고졸	-0.049AB	8.158***
		대제	0.1292089A	
		대학원재학	0.0218A	
		대학원이상	-0.4039363B	
요인1: 타인의식적 패션태도	고졸	고졸	-0.2305089B	6.301***
		대제	-0.087B	
		대학원재학	0.4063110A	
		대학원이상	-0.061B	

Continued.

요인별	변인	구분	평균	F-Value
요인4: 고가제품추구 패션태도	직업	학생	-0.0063AB	2.887**
		사무직	3.038596AB	
		판매서비스직	-0.6903616(B)	
		전문경영직	0.4990173(A)	
		공무원	0.4340811AB	
요인1: 타인의식적 패션태도	학생	학생	-0.083ABC	5.032***
		사무직	0.3774006	
		판매서비스직	-0.020ABC	
		전문경영직	0.6070485A	
		공무원	0.6720254A	
요인3: 합리적 패션태도	2000위엔 이하	2000위엔 이하	-0.1090669B	3.176**
		2000-3000위엔	-0.079B	
		3000-4000위엔	-0.066B	
		4000-5000위엔	0.0777B	
		5000-10000위엔	0.1713614B	
요인7: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	2000위엔 이하	2000위엔 이하	0.0366A	3.456**
		2000-3000위엔	0.1676801A	
		3000-4000위엔	0.1083618A	
		4000-5000위엔	-0.029A	
		5000-10000위엔	-0.2273438A	
요인1: 타인의식적 패션태도	2000위엔 이하	2000위엔 이하	-0.1899047C	12.560***
		2000-3000위엔	-2.083169C	
		3000-4000위엔	-0.1310049C	
		4000-5000위엔	0.1043913BC	
		5000-10000위엔	0.4005821B	
요인2: 타인의존적 패션태도	2000위엔 이하	2000위엔 이하	0.0303AB	2.767*
		2000-3000위엔	-0.2826735B	
		3000-4000위엔	-0.062AB	
		4000-5000위엔	-0.019AB	
		5000-10000위엔	0.3208696A	
요인3: 합리적 패션태도	거주지	북경	-0.1949899B	10.896***
		상하이	0.2531841A	
		대련	-0.092B	
		복경	0.0775A	
요인7: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	상하이	상하이	-0.171864B	4.768**
		대련	0.1180274A	
		북경	-0.071B	
		복경	-0.094B	
요인8: 개성지향적 패션태도	대련	대련	0.1796994A	4.211*
		북경	0.2494742A	
		상하이	0.035B	
		대련	-0.2126475B	
요인1: 타인의식적 패션태도	북경	북경	0.2494742A	9.895***
		상하이	0.035B	
		대련	-0.2126475B	
		북경	0.2494742A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A>B>C>: Duncan Test

소인 연령, 학력, 수입, 직업, 거주지 등 변인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독특한 패션태도는 인구통계변인들과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외에 타인의존적 패션태도는 다만 수입에서 차이를, 합리적 패션태도는 연령, 학력, 수입, 출생지에서 차이를, 고가제품추구 패션태도는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적극적인 외모관리 패션태도는 여성은 학력에서만,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는 연령, 수입, 출생지에서, 개성지향적 패션태도는 연령, 학력, 거주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외모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신체적 차이 즉 키, 체중 차이에 따라서는 타인의식적, 적극적 이미지관리, 성역할태도적인 패션태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식적 패션태도와 고가제품 추구 패션태도요인에서는 $P<.01$ 수준에, 합리적 패션태도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3세~30세의 집단이 23세 이하의 집단에 비해 타인을 의식하거나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패션생활을 하거나 고가제품을 선택하는 패션태도를 상대적으로 더 나타내었고 고학력이거나 졸업 후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더욱 타인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원인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성숙되며 비교적 합리한 패션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며 직업을 잡은 후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하고 높은 수입이 있기에 고가상품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와 개성지향적 패션태도는 연령에서 유사한 차이를 보였는데, 18세~20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1~22세 집단, 23세~25세 집단, 마지막으로 26세~30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대담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를 즐기는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비교적 부드럽고 편안한 패션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패션태도 차이를 분석해 보면, 합리적 패션태도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이상 집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패션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원이상의 집단은 소비가 상대적으로 성숙되고 이성적이므로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옷을 입는다. 반면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 재학생인데 연령이 작을수록 소비 심리가 성숙되지 못했기에 비교적 불합리한 패션태도가 나타났다.

고가제품 추구태도에서는 $P<.05$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고등학생 집단이 가장 뚜렷하다. 그들은 연령이 작지만 허영심은 강하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심리가 많으며 비교적 자기정체성이 부족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패션태도에서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적극적 외모관리태도에서는 $P<.05$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대학재학생과 대학원재학생 이 세 집단 중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외모에 대해 각별히 중시하며 외모관리에 많은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기 좋아한다. 반면 대학원이상 학력자는 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성숙되었으므로 외모 이외의 것, 다시 말하면 내재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개성화의 패션태도에서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대학원이하의 집단은 다 개성화의 패션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연령이 역시 원인으로 된다. 대학원이상 집단은 보다 사회적인 활동이 많으므로 자기 개성추구보다는 타인을 의식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패션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타인의식적 패션태도에서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학원 재학생집단이 가장 높다. 그들은 보통 괜찮은 경제배경이 있으므로 부담이 그리 없어 마음이 기쁜 편이다. 그 다음은 대학원이상, 대학교재학생과 고등학교집단이다.

직업에 따른 패션태도차이를 보면 고가제품 추구 패션태도에서는 $P<.01$ 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전문직 경영관리적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그들의 수입이 가장 높아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사무직과 공무원, 마지막으로 경제능력이 가장 약한 학생과 판매원, 서비스업종업원 집단이다.

타인의식적 패션태도에서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전문경영직, 공무원과 사무직이 가장 높다. 이는 그들의 사업 환경이 옷차림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엄격한 데 있다. 반면 학생과 판매원, 서비스업종업원 집단은 패션태도에 대한 중시도가 높지 않다.

수입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아낼 수 있다. 요인3 즉 합리적 패션태도에서는 $P<.01$ 에서, 요인1 즉 타인의식적 패션태도에서는 $P<.001$ 에서와 요인2 즉 타인 의존적 패션태도에서는 $P<.05$ 에서 수입이 5000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고, 기타 5000원 이하 집단이 비적극적이다. 이 세가지 요인은 수입과 정비례를 이루는바 수입이 높을수록 옷차림에 신경을 더 쓰고 주위친구들의 의견을 중히 여기면서 시간, 지점, 대상에 따라 옷을 입는다. 반면 요인7 ($P<.01$)에서는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가 수입이 5000원 이상 집단에서 가장 비적극적이고 5000원 이하 수입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성미의 패션에 흥취를 더 가진다.

거주지 분석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요인3 즉 합리적 패션태도에서는 $P<.001$ 수준에서 나타났는데 상해지역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경과 대련이었다. 요인7 즉 성역할 의식적 패션태도에서는 $P<.01$ 수준에서는 상반되는 결과 즉 북경과 대련이 가장 높고 상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8에서 대련지역이 개성화의 패션태도를 가장 강조하는데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요인1 즉 타인의식적 패션태도에서는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북경, 상해지역이 가장 높고 대련이 가장 낮았다.

원인은 비교적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북경과 상해는 중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로서 경제수준과 패션업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의 패션은 비교적 합리적인데 차원이 높을수록 옷차림을 중히 여기며 선진적인 패션방식도 재빨리 접수한다. 상해, 북경은 국제성적 대도시의 규모를 갖추었고 허다한 외래문화를 흡수하였으며 패션태도에서 더욱 앞섰다. 대련은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방에 위치한 중등도시로서 패션태도가 북경, 상해처럼 그렇게 선진적이 못되고 고급복장의 접수수준도 제한되어 있다.

4. 결론 및 제언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태도요인, 패션관련태도요인을 분석

한 내용들을 여러 관점에서 파악해 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태도요인은 과소비향락적, 스포츠지향적, 결혼지향적인, 이성 외모중시적, 학업지향적 생활태도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과소비향락적인 생활태도요인은 학력, 종교, 거주지, 스포츠 지향생활태도 요인은 성별, 거주지, 결혼지향적인 요인은 연령, 학력, 거주지, 이성지향적 생활태도는 성별, 그리고 학업지향적 생활태도요인은 연령,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중국 신세대 남녀의 패션태도요인은 타인의식적, 타인의존적, 합리적, 고가제품추구, 적극적 이미지관리, 독특한, 성역할 의식적, 개성지향적 패션태도의 총 8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타인의식적, 합리적, 성역할 지향적 패션태도요인은 연령, 학력, 수입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가제품추구 패션태도요인은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그리고 개성지향적 패션태도요인은 연령과 학력에서, 타인의존적 패션태도 요인은 수입에서, 적극적 외모관리 패션태도는 학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독특한 패션태도요인은 인구통계적 변인들과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중국에서도 발전 속도가 빠른 북경, 상해, 대련 지역의 20대 전후의 신세대 남녀만을 한정시켜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중국 20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며,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모관리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번역의 정확성 및 설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고에란 · 강혜원 · 한혜원 (1987) 성인 남자의 연령 및 사회 · 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1), 1-10.
 고에란 · 남미우 (1998) 성인 남성의 성적 지향에 따른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4), 460-468.
 권순기 (1990) 남성유행혁신자의 의복행동과 라이프스타일 특성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경 · 이숙경 (1998) 남성 성역할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4), 339-346.
 김명숙 (1998) 성인남성의 의복관심도와 의복유형에 따른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희 (1992) 여고생의 체중조절관심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인 (1990) 남성복 정장스타일 유형에 의해 세분된 집단 간의 특성비교. *한국의류학회지*, 14(2), 137-151.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숙례 (2000) 성인여성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 윤종희 (1999)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 127-136.
 김재희 · 정삼호 (1995)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남성의 의복

태도와 성역할태도와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1), 129-141.
 김현미 (1992) 성인남성의 의복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뉴스메이커 (2003) 얼짱신드롬 바로보기. 11.6.
 동아일보 (2004) 얼짱신드롬 어디까지. 1.30.
 류숙희 · 김보연 (2001) 성인남성의 의복색채선호와 색채관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지영 (2004) 2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숙희 (1998) 성형수술 전 후 신체상 및 자존감에 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금순 (1997) 미용성형수술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영신 (1997) 소비자 광고 속의 신체이미지: 아름다움의 담론. *사회비평*, 17, 31-62.
 소지숙 (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 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유정 (1994) 성형수술환자의 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기 존중감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정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경숙 (2000) 부산지역 일부 여성들의 성형수술 시술실태 및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창조 · 정혜은 (2002)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연구. *소비자학 연구*, 13(1), 211-232.
 윤명 (2000) 신세대 남성 패션 매니어에 관한 연구. 기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 (1992)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 (1998) 여대생의 체중조절실태와 식이섭취 조사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주 · 임숙자(2001)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춤성 만족도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이은실 (2000) 남성의 성 지향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과 외모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정 (1995) 성인남성의 의복구매관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원(1999)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경숙 (2000) 남자 중 · 고등학생의 유행선도력과 정보원 활용 및 의류구매행동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675-685.
 정미숙 (2000) 여대생들의 피부관리와 화장습관에 관한 연구 - 대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명 (2000)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성 (2002) 남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일보 (2004) 몸짱, 강짱 난무하는 짱. 1. 30.
 한동여 (1987)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화장품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의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293-302.
 황진숙(1998) 미국 여대생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 유행혁신성, 쇼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8), 1061-1069.
 (2005년 11월 16일 접수)